

윤리와 사상 정답

1	④	2	①	3	②	4	③	5	⑤
6	⑤	7	③	8	⑤	9	②	10	④
11	④	12	⑤	13	②	14	⑤	15	①
16	③	17	②	18	①	19	②	20	④

윤리와 사상 해설

1. [출제의도] 사르트르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 이해하기

그림의 강연자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인 사르트르이다. 사르트르는 인간이 미리 정해진 본질이나 목적 없이 세계 속에 실존하며, 인간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출제의도] 아퀴나스와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스콜라 철학자 아퀴나스, 율은 교부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이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바탕으로 이성애 기초하여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노력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유한한 존재인 인간의 참된 행복은 내세에서 신의 사랑과 은총으로 실현된다고 보았다.

3. [출제의도] 이황과 이이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이황, 율은 이이이다. 이황은 이기호발설의 입장에서 이(理)와 기(氣)가 모두 발(發)한다고 보고, 사단과 칠정의 연원이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이이는 발하는 것은 기이고 발하는 까닭은 이라고 주장하며, 사단과 칠정은 모두 기가 발한 감정이라고 보았다.

4. [출제의도] 원효와 의천의 입장 이해하기

같은 원효, 율은 의천이다. 원효는 일심(一心) 사상을 바탕으로 정해진 틀이나 형식에서 벗어나 수행하는 무애행(無碍行)을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다. 의천은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과의 조화를 추구하며 경전의 가르침인 교(敎)와 마음을 바라보는 관(觀)을 함께 닦아야 한다고 보았다.

5. [출제의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 이해하기

제시문 (가)의 같은 플라톤, 율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플라톤은 개별 사물의 본질이 현실 세계를 초월한 이데아의 세계에 실재한다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물의 본질이 이데아의 세계가 아닌 현실 세계의 사물에 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6. [출제의도] 목자의 평화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 (가)를 주장한 동양 사상가는 목자이다. 그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겸애(兼愛)와 서로 이익을 나누는 교리(交利)를 실천할 때 천하가 평화로워질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타국에 대한 침공을 반대하는 비공(非攻)을 강조하였다.

7. [출제의도] 아리스토텔레스와 로크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 (가)의 같은 아리스토텔레스, 율은 로크이다. (나)의 퍼즐 속 가로 낱말 (A)는 '국제', (B)는 '제자백가'이므로, 세로 낱말 (A)는 '국가'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인간의 정치적 본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겨난다고 보았다. 이때 국가는 구성원이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공동체라고 주장하였다. 로크는 국가가 공공선의 실현을 위해 사회계약 위반자에 대한 처벌권을 가진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정치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권력 분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8. [출제의도] 순자와 공자의 입장 이해하기

같은 순자, 율은 공자이다. 순자는 성인의 가르침에 따라 예(禮)를 통해 인간의 악한 본성을 교화해야 한다[化性起僞]고 주장하였다. 공자는 내면적 도덕성인 인(仁)과 더불어 외면적 규범인 예(禮)를 강조하였다.

9. [출제의도] 스피노자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스피노자이다. 그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로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인간의 자유 의지를 부정하였다. 스피노자는 인간이 자연의 인과법칙을 인식할 때 자유롭게 되고 영원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10. [출제의도]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소피스트인 트라시마코스, 율은 소크라테스이다.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를 강자의 이익이라고 주장하였다. 소크라테스는 영혼을 온전하게 가꾸는 일을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상의 과업으로 보았으며, 덕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1. [출제의도] 스토아학과 에피쿠로스학파의 입장 비교하기

제시문 (가)의 같은 스토아학과 아우렐리우스, 율은 에피쿠로스이다. 아우렐리우스는 모든 일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필연적으로 일어나며, 자연의 일부인 인간이 자연 법칙을 통찰하고 순리에 따를 때 부동심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에피쿠로스는 적극적인 욕망의 충족에 따른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 없고 마음의 불안이 없는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12. [출제의도] 중관 사상과 유식 사상 이해하기

같은 중관 사상을 주장한 용수, 율은 유식 사상을 주장한 세친이다. 용수는 모든 사물이 연(緣)에 따라 발생하므로 실체로서 있는 것은 없으며, 중도(中道)의 관점에서 양극단에 치우치지 말고 사물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세친은 모든 현상이 오직[唯] 마음[識]의 작용으로만 존재하므로 마음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13. [출제의도] 흄과 칸트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흄, 율은 칸트이다. 흄은 도덕적 판단과 행위에서 중요한 것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라고 보았으며, 공감 능력이 도덕성의 기초가 된다고 보았다. 칸트는 의무 의식에서 비롯된 행위만을 도덕적인 것이라고 보았으며, 인간이 실천 이성의 명령을 따를 때 도덕적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4. [출제의도] 밀의 입장에서 칸트 사상 비판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밀이다. 밀은 쾌락주의를 바탕으로 공리의 원리를 도덕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며, 쾌락의 양적 차이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도 고려할 것을 주장하였다. 밀은 도덕이 목적 그 자체가 아니라 행복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라고 보았다.

15. [출제의도]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비교하기

같은 자유주의자 벌린, 율은 공화주의자 비롤리이다. 벌린은 소극적 자유의 입장에서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강제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진정한 자유로 보았다. 비롤리는 진정한 자유란 간섭의 부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사적으로 종속되지 않는 상태이며, 이것은 공공의 법과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16. [출제의도] 장자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장자이다. 그는 인간

의 자기중심적 편견에서 비롯된 분별적 지식에서 벗어나 도(道)와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시비선악(是非善惡), 미추(美醜) 등의 분별을 초월하여 제물(齊物)의 경지에 이를 것을 주장하였다.

17. [출제의도] 왕수인과 주희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양명학자 왕수인, 율은 성리학자 주희이다. 왕수인은 마음 밖에는 어떠한 이치도 없으므로 마음의 본체인 양지를 적극적으로 발휘할 것을 강조하였다. 주희는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앎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하늘의 이치가 인간의 마음에 성(性)으로 갖추어져 있다고 보았다.

18. [출제의도] 신자유주의와 수정 자본주의 비교하기

같은 신자유주의자 하이에크, 율은 수정 자본주의자 케인스이다. 하이에크는 정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는 시장 경제 확대를 주장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반대하였다. 케인스는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 및 규제를 통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19. [출제의도] 동도서기론과 동학사상 입장 비교하기

같은 동도서기론자 신기선, 율은 동학사상가 최제우이다. 신기선은 유교적 질서를 지키면서 서양의 과학 기술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제우는 한울님을 모시고 있는 인간은 모두 존엄하고 평등하다고 주장하였고 동학의 기본 덕목인 정성[誠]·공경[敬]·믿음[信]을 중시하였다.

20. [출제의도] 민주 사회주의와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비교하기

(가)는 민주 사회주의, (나)는 마르크스의 사회주의이다. 민주 사회주의는 의회 중심의 민주적 방법을 통해 점진적 사회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마르크스의 사회주의는 인류의 역사를 계급 투쟁의 역사로 설명하며, 역사적 발전 단계에 따라 국가와 계급은 필연적으로 소멸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